

故 안형식 교수님 추모심포지엄

고(故)안형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동문 추모사

너무도 일찍 떠났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별의 인사도 없이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이른 이별에 남은 이들은 황당합니다. 세월과 질병이 두렵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질병으로 마지막 기간을 지고 있습니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학자에게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검진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배님은 암으로 진단 받으신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돌아가셨다. 기약없이 닥치는 죽음이 어느 순간 나의 차례로 다가올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잊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죽음은 다가올 것입니다. 교수에게도, 의사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현직에 있어도, 높은 지위에서 보직을 했던지, SCI 논문을 많이 쓴 사람에게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죽음은 결국은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과의 이별입니다. 이런 이별이 두려움은 공포가 됩니다. 결국, 다시 만날 수 없는 죽음은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동문회는 전공의, 박사, 석사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1987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을 예방의학교실에서 분리하여 신영수, 김용익 교수님이 설립하였습니다. 두분이 현직 교수로 계실 때에는 교실에서 직접 수련, 수학을 하지 않은 분들도 동문회의 모임에 같이 참여하였습니다.

고(故)안형식 선배님은 1987년 의료관리학교실이 예방학교실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시기에 전공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의료관리와 예방의학의 정체성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같이했던 이상일 교수님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방의학의 역학적인 분석과 의료관리 사회정책적인 관점을 갖고 자신의 연구 분야를 구축하였습니다. 근거에 입각한 보건의료정책, 근거를 위한 자료의 구축에 많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의료정책과 현실정치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었으나, 의료관리학의 학자로서 의료현실에 대하여 자신의 역할과 메시지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이제 많은 동문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김용익 선생님이 활동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의료관리학교실과 동문회는 이제 새롭게 환경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을 통해 배출된 제1세대를 대표하는 선배를 잃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가슴이 아픕니다.

죽음은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고(故)안형식 선배를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를 만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예방의학 의료관리의 발전을 위해 그가 했던 생각, 고민, 그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기억과 짧은 기간 이루어 놓은 성과를 추모하여, 앞으로 많은 동료와 후학들이 그가 했던 일을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기에 더욱 그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문회를 대표하여 고(故)안형식 교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해주신 대한예방의학회와 고려대 보건대학원,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과 윤석준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11. 2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동문회장. 이건설